

시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김 선 기 전남도립대 교양학부·문학평론가

생때같은 우리 자식들이 백주에 도심 한복판에서, 군대에서, 산업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게 죽어 나가고 있다. 근래 채 해병 사망에 이어 육군 훈련병과 보병 사단 A일병이 목숨을 잃어 슬픔을 안겨주더니,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열아홉 살 청년이 전주의 한 노동 현장에서 숨졌다. 입사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다. 정말 돌이키고 싶잖은 일들이다.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건 전주의 어린 노동자 유품에서 발견된 메모장이다. 그는 일본어와 영어를 배우고 싶어 했고,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꿈많은 청년이었다.

그가 남긴 메모장엔 자기 개발, 회사 생활, 저축 등 미래에 대한 목표가 세세히 담겨 있다. 특히 올해 목표는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하지 않기', '하기 전에 겁먹지 않기', '기록하는 습관 들이기', '구체적인 미래 목표 세우기', '미술·사진 등 예체능 계열 손대보기' 등이 적혀 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돈을 아끼

지 말고, 사진을 많이 찍어 두자'는 목표도 덧붙혔다. 마치 자신에게 닥쳐올 불운을 예언이라도 한 듯한 내용 같아 마음을 아리게 한다.

우리를 더욱 마음 아프게 하는 건, 월급 대부분을 저축해 목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군대에 갔을 때 받을 월급까지 생각하며 2027년 2월까지 6천만 원을 모으겠다는 각오다. 정말 속이 꽉 찬 청년이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던 청년이었는데, 한 사람의 세상이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상황은 너무나 낮익기에 비통함이 더하다. 일일이 열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만, 지난 2021년 경기도 팽택항에서 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 중 무게 300kg가량의 지지대에 깔려 숨졌다. 2016년엔 구의역 스크린 도어 수리공 19세 김 군이, 2018년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세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만도 882명이 죽어 나갔단다. 이게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나라의 노동 현상이 개편이라는 건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반

세기가 지난 지금도 산업현장에서 잇따르는 청년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전시도 아닌데 한 해 1천여 명이 목숨을 잃는 이 '비정상 사회'와 맞서 싸우는 일은 늘 슬픔에 젖은 유가족들의 몫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입에 발린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되뇌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목숨이라도 더 살리자는 절규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들과 노동계의 피 어린 노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긴 했지만, 효용이 아닌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은 산업현장에 아직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음은 연이은 죽음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재계의 입김에 휘둘려 처벌 완화, 적용 제한, 시행 유예 등으로 누더기가 돼버린 입법 과정만 봐도 그렇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서는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외치며 절규하는 노동자가 있다.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나와선 안 된다. 물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사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먼저다.

생때같은 우리의 자식들이 잇따라 죽어 나가는 현실에 대해 이제 국가가 답할 차례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다.

社說

문화수도 위상 광주 전문예술극장 건립 차질 없길

문화수도를 자처하는 광주시가 전문예술극장 건립에 진심이다. 오페라·뮤지컬 등 전문 장르의 콘텐츠를 수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이지만 광주는 물론 호남권에 전무한 때문이다. 대부분 공연장이 다목적용으로 명성황후 등 대형 작품을 선보이기에 한계가 있다.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차별 실시계획 2022년 사업에 반영, 2023년 말, 실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올해는 3월 5개 자치구로부터 희망 부지를 신청 받았으며,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 내년 초 중앙부처에 예타 조사를 신청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구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방침이다.

결국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성과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다. 부지 선정과 공연 장르, 운영 방식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 전문성 확보 등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길

대내외로 긍정 분위기다. 두차례 회의를 통해 자문위원들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공연예술의 위상 제고, 광주시 예술단과 미래 예술가들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 마련, 시민의 예술적 경험과 문화적 생활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광주는 8개의 시립예술단 외에도 전문 공연예술을 이어오는 민간단체 120여 개가 활동하고 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문화적 자력이 뛰어나다. 연내 나온 마스터플랜을 주목하게 된다. 전문극장의 적정 규모를 도출하고 효율적 운영 방안이 초점을 맞춰야 하겠다. 355일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참여 프로그램도 구성해야 한다. 문화도시로서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우수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인프라다. 지역 여론과 시민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대규모 국비 유치 사업이다. 광주시는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발굴, 각 당에서 반영을 요청했다. 야심차게 추진하는 국제적 수준의 전문예술극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

국제슬로푸드 총회 적지는 전남, 유치위 활동 기대

국제슬로푸드본부는 이탈리아 브라에 위치하며 1986년 설립된 비영리기관이다. 우리나라도 (사)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중이다. 총회는 환경, 식품안전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 발전을 위한 플랫폼이다. 이탈리아·미국·브라질·우간다 등 전세계 90여개국 500여 명의 대의원이 참가해 소멸 위기에 처한 식자재 보존, 전통 음식 문화 유산 계승 등 여러 주제를 다루며 전문가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2026 국제 슬로푸드 총회'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행보에 들어갔다. 첫 회의에서는 연차별 사업계획 공유, 위원회 운영 방안 및 추진 절차 안내, 의향서 제출, 2024 전남·여수 슬로푸드 포럼 운영 계획, 맛의 방주 프로젝트 등재 아이템 및 슬로푸드 콘텐츠 발굴 등을 논의했다.

슬로푸드는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음식을 모토로 패스트푸드 반대를 넘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역할과 친환경 농업생태계를 만드는 국제캠페인이다. 생명의 땅으로 일컫는 전남에서는 연중 건강하고 신선한 제철 먹거리들이 넘쳐난다. 다만 공정의 정의는 생산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재료를 치르는 것인데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슬로푸드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한 총회와 다소 늦었지만 유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위가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시군과 적극적인 협력, 노력이 중요하다. 전남은 슬로푸드의 가치에 맞는 다양한 음식, 전통과 현대를 살리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경관도 매우 훌륭하다. 글로벌 관광의 중심으로 슬로푸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미각의 즐거움, 전통음식 보존 등의 가치를 내건, 미래 세대를 위한 식생활운동이다. 총회 개최의 적지다. 전남의 매력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치칼럼

주민자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해서



김 용 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송원대학교 교수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행위이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과 자치에 있다. 주민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며, 자치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세월에 비하면 크게 자랑하고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 의식의 한계, 주민자치의 정치세력화, 주민 참여의 저조, 행정의 관료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으며, 조금씩 극복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명쾌한 답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하다. 주민자치는 어디를 보고 가야 하는가? 그 방향성은 무엇인가? 주민자치 실천 현장의 모습은 1천개의 얼굴을 가졌다. 이제는 주민자치의 다양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공동체 회복, 주민 참여를 여전히 말할 수 없을 만큼 현장은 무궁무진하다.

왜 현장은 무궁무진하고 1천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을까?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는 것이 주민자치라면, 지역의 문제가 너무 많고 다양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지역에는 빈곤한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성 불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한 주민이 있다. 지역에는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은 주민이 있다. 지역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역은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로서 주민의 역할이 있다. 지역 주민 모두는 건강한 삶을 보장받은 동시에 복지 증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지역문제는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적 문제이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 주변의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전 세계적 문제까지 이르기까지 지역에서 관심을 두고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 우리는 UN이 2015년에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이다. 총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정하고, 목표는 목표 간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적절한 정전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사회 기반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정의와 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파트너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가 있다. 광주시도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선정해 실천하고 있다. 마을이나 동네마다 그 지역의 문제가 다르며 특수하다. 마을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그 목표에 맞추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지향점으로 삼으면 어떤가?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목표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정체돼 왔다.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제는 선진국으로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 어떤 철학을 새로운 혁명적 패러다임의 이념으로 삼을 것인가? 필자는 지속가능발전목표라고 생각 한다. 마을과 함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세계 속에서 마을이 빛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됐다.

주민자치로 지역사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선진국으로 지역사회를 혁신 해 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주민자치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방향은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찾아야 한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만들어 보자.

독자투고

장마철 전조증 켜고 운행하자



진 병 진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됐다. 많은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 또한 안개가 자욱한 날에는 차량 운전자들은 꼭 전조등 또는 미등을 반드시 켜고 운행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시야 확보와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예전에 외국에서도 낮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한 결과 교통사고가 20%정도 줄었다는 통계가 있었다. 그만큼 자동차 전조등은 교통

사고 예방의 아주 중요한 척도인 것이다.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러한 사고 대부분이 운전자들이 느끼는 시야의 범위가 아주 다르다는 걸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나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하고도 불행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맑은 날, 흐리고 비가 오는 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때, 내차와 다른 차에게 잘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 및 상대 운전자를 위해 반드시 내 위치를 알리는 전조등을 켜고

운행했으면 한다.

수많은 계획 수립 속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절대절명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모든 라이트와 전구에 이상이 없는지, 잘 켜지는지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라이트의 먼지를 청소하며, 어렵지 않은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꼭 운전자들 전조등을 켜 한 번 발생하면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는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한다.

(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아침물어는 詩

사진은 왜

서숙희



사진을 보는 건 조건으 쓸쓸한 일이다 어느 먼 추억 속에 꽂혀 있는 생의 한 갈피 사진은 왜 과거 속에서만 희미하게 웃을까

나비가 잠시 앉았던 것 같은 그때 거기서 젊은 한때가 젊은 채로 늙어가는데 사진은 왜 모르는 척 모서리만 남아갈까 (시조집 '먼 길을 돌아왔네', 푸른사상, 2020)

[시의 눈]

앗따, 우리 영감도 스물한 살 젊었을 때는 미남이었지랴우. 힘도 장사였어. 동란 때 이불보따리에, 보릿자루 셋에다, 김치독, 된장항아리까지 짊어지고 역전으로 뛰었세. 5남매 이끌고나도 죽자사자 꽃이갓갓개. 새벽 기차를 탈라고 하는데, 아, 연착한다는 거여. 그때 읍내 사진사 양반이 찍었세. 찡그리지 말고 있으라 했어. 부산 피난 동네 가서 뺄준 게 바로 이것이구먼. 지랄맞고 나 그때 웃었는데 모르겠어. 팽죽떡은 모서리 남아 가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볼수 가리킵니다. 생사를 바꿀 만큼 위대했었지만 사진을 찍는 다니까 웃는. 그게 젊을 때면이었지요. 처절한 시대를 버텨낸 '생의 한 갈피'를 사진에 담은 순간이 느릿 지나갑니다. 고사리더듬이처럼 꿈자러려려 먹순이가 등뒤 미지근히 전해져 아, 애가 살아있구나, 팻쪽팻쪽 뛰던 때군요. 근디, 사진은 왜 그걸 모르는 척하고 있을꺼랴우. 오늘이 마침 영감 재상날이여. 인자 영감 생각이 나도 이 사진 안 볼랴우. 눈물은 고하간에 쓸쓸해지려는 맘이 영 거시기하구먼. 거친 손이 나비인 듯 잠시 험렁한 가슴에 얹혀 집니다. 서숙희 시인은 경북 포항에서 나, 1982년 매일신문과 부산일보 신춘문예 시조로 등단했습니다. 시조집 '그대 아니라도 꽃은 피어'(2000), '손이 작은 그 여자'(2010) 등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지상의 동반자로 삼으며 아픔이나 슬픔 또한 따뜻하게 품는 시로도 유명한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烈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입문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